영암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빈집은행' 세운다

빈집 문제해결 통해 귀농·귀촌인 조기 정착 지원
농촌 빈집 업무 주택관리팀 전담으로 업무 일원화

영암군이 증가하는 농촌 빈집 문제해결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빈집은행'을 설립키로 했다.

영암군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증가하는 농촌지역 빈집 업무를 주택관리팀에서 전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주택관리팀에서는 빈집 실태조사에서 종합계획 수립까지 담당하고,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국.도비와 공모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또 문화·관광·인구유입에 유용한 자원인 빈집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활용하기 위한 협업팀도 구성키로 했다.

특히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은행'을 설립해 귀농·귀촌인들의 영암 정착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최근 군청에서 빈집정리 등 주거문화 해결을 위한 협업회의를 갖고 빈집 마케팅 사업, 빈집 활용한 농촌형 워케이션 구축, 빈집 전담 근로자 배치 등을 논의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협업회의가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면서 "실태조사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빈집을 지역발전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방범용 CCTV 고화질로 모두 바꾼다

국비 5000만원 확보
마을회관 16곳 신규 설치

함평군은 군민 치안환경 개선을 위해 저화질 폐쇄회로(CC)TV를 시인성이 우수한 고화질로 전면 교체한다고 1일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 저화질 폐쇄회로 교체에 따른 재난안전특교세를 신청해 올해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함평군은 국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저화질 CCTV 55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곤봉산 등산로, 엑스포공원, 자연생태공원 등 저화질 CCTV가 설치된 55곳이다.

고화질 CCTV로 교체되면 객체가 흐릿하게 보여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능형 관제체계의 기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능형 CCTV 도입(300개)과 마을회관 CCTV 설치사업(16곳) 추진 등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군 안전센터 영상 연계망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상시 관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해상케이블카,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 4년 연속 수상 '쾌거'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로 전남 서남권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목포해상케이블카가 4년 연속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2024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면서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2일 밝혔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9년 개통 이후 400만명 탑승이란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 3.23㎞로 목포 원도심과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서남권 해양, 레저, 문화관광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최고 높이 155m의 고공 캐빈에서 펼쳐지는 목포대교, 고하도 창공의 황금빛 낙조와 야경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3~2024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임산부·농가 원윈 '친환경농산물' 구입 지원

영광군이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을 챙기고 지역 농가에는 소득 향상의 기쁨을 안겨준다.

영광군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군에 거주 중인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제외다.

신청은 오는 3월25일까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에코이몰'(www.ecoemall.com)을 통해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은 구매 비용 중 80%를 전남도와 영광군이 부담하고 20%는 임산부가 부담한다. 9만6000원을 자부담하면 최대 48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가능 기간은 올 12월15일까지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지적기준점 5379점 전산화 구축 사업 착수한다

무안군은 5일부터 수기 관리되고 있는 지적기준점 5,379점을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는 전산화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지적도 경계 결정 시 활용되는 기준점으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영구 보존을 위해 도로와 제방 등 공공용지에 설치되어 있다.

기준점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일제 조사를 거쳐 망실·훼손된 점은 폐기 고시와 신규 설치한 점에 대해서는 신설 고시를 하여 지역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분할, 토지 매매 분할 시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있다.

군은 항공사진과 중첩하여 현장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좌푯값을 탑재할 예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은 오는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정확한 지적측량 시행으로 군민 재산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 국토 최서남단 흑산도에서 새공예 작품 전시 개최

신안새공예박물관, 부와 행운의 상징 부엉이 공예품 등 1,100여 점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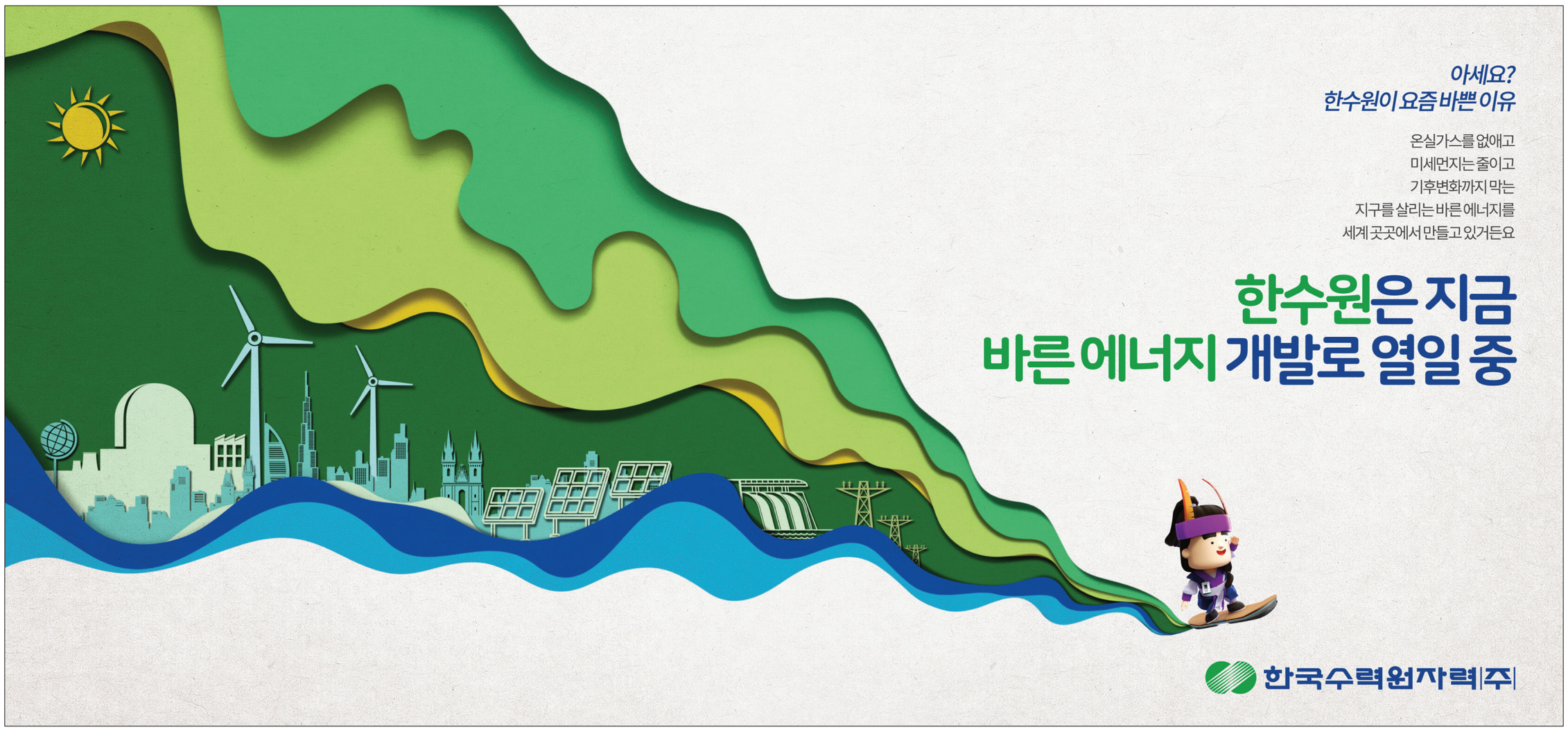
신안군은 국제적인 철새 중간 기착지인 흑산도에 조성된 새공예박물관에서 오는 3월 30일까지 '부엉이 곳간'을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국가 간 이동하는 철새와 서식지를 보전하고 새(조류)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새공예박물관을 개관했다.

이번 기획전은 '부엉이 곳간'으로 사람에게 친숙한 부엉이를 주제로 개최한다. 부엉이는 예로부터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데, 먹이를 닥치는 대로 물어와 쌓아두는 습성으로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재물과 행운이 샘솟는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부엉이와 관련된 장식품을 지인에게 선물한다. 이런 부엉이 습성으로 '부엉이살림', '부엉이 곳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기획전에는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등 20개국에서 수집된 공예품 70점과 국내 도자 공예품 13점 등 총 83점의 부엉이 공예품을 3월 30일까지 전시된다.

새공예박물관에 전시된 공예품은 10여 년 전부터 신안군청 직원들이 국내·외에서 직접 수집한 작품으로 현재 27개국에서 수집한 공예품 1,1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0년간 많은 직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새공예박물관이 현재는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다."라며, "기획전을 통해 새공예박물관을 알리고, 방문하는 모든 분이 부엉이 기운을 받아 행복과 행운을 함께 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